

사설

지난 11일 고성군번영회와 이장단체협의회 및 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복합화력발전소 제안 설명회는 8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주로 사회단체장 등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월 고성군청 상황실에서 간부급 공무원과 군의원 등 소수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 결과 고성군이 사실상 포기 결정을 하자, 보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를 알려 지역사회 전반이 논의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설명회는 이렇다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내용면에서도 군청상황실에서 열린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업체 소

개와 사업 효과 등에 대한 홍보 차원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질문 답변 시간이 마련되었으나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업체의 답변 역시 성실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복합화력발전소 예정

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위치를 알 수 없으면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80여명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아 놓고, 이처럼 불쾌한 모습을 연출했다.

줄 수 없다고 했었다.

업체의 이러한 태도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무슨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1급비밀이라도 되며, 업체 종사자들이 국정원 특수요원쯤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심지어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오늘 당장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하라고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처사이다.

앞으로 또다른 설명회가 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업체 관계자가 앞으로 이런 자세로 설명회를 한다면 망신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성군이 비록 인구 3만명 남짓의 시골마을이라고 하지만,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복합화력발전소 설명회의 불쾌한 기억

부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성군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했으나,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설명회 참석자 여러명이 잇달아 질문을 하자, "이 모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말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업체 관계자의 이런 태도는 고성군민

업체 관계자는 또 자신들의 얼굴이 절대 언론에 공개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설명회 취재를 왔던 방송국 카메라팀들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업체의 이런 태도는 지난 2월 군청상황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당시 기자들에게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고, 설명회자료까지 내

보험(insurance;장래 예기치 못한 손해 보상을 위하여 미리 금원을 각출하다)은 保證(보증의지; 아름다운 시작이요 마침 뜻) 確實明瞭(확실 명료; 믿음 信賴; 보증의지) 보증이다. 우연히 또는 뜻하지 않는 사고발생(자연재해와 인위적 사고를 포함)으로 재산 신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재난을 입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로 하고 보험료를 받는 일 즉 상호원조를 의미한다.

보험의 경제적 기초는 개인책임의 원칙을 경제단위로 하여 상호적 지원하는 나의 살림 우리살림 나라살림을 담당한 必需不可缺(필수불가결)한 경제적 단위이다. 보험이란(생활보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 본인 책임 있음)장래 지금 위험부담 제거를 위하여 통합적 종합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보험제도에 대한 기구에 이해는 경제적 필요·위험·보험료·재보험(보험자 책임을 다른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 등 보험경영 자체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험의 표준은 대상(위험)을 둘 때 인(대인보험)·재산(대물보험)·기업보험(영리목적)·가계보험(소비목적)·개인보험(소득목적)·사회보험(국민경제 상해 폐지 사망 출산 노령 실업 多子)·생명보험(생명사고)·화재보험(화재사고)·해상보험(해상사고)분류 이에 대하여 사회보장은 (social security; 저소득국민 층에 대한 생활보호정책 또는 제도) 인간다운 생활을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 논설위원



사회보험은 자신의 위상을 지키는 것

목적으로 하였고, 각국은 구조적인 최하층을 포함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확보하려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제도의 방법(조직)을 둔다면 영리 비영리 민영 공영 단수보험자 보험 복수보험자 보험 개별적 임의적 보험 일반적 의무적 보험 등으로 명명하나, 이 목적에 부합되었다. 엄격한 용어로 구분하기에 난해 하나 경제학상 관점에서 설명된 것이다. 우리속담엔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은 귀감이 되는 정적지혜이다.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면 산다, 등이 파스우라 배가 부르라에서 만족할 것이나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한다는 것.

고로 사회조각구성에 따른 제 보험은 국민 경제의 원천 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계속발전 하여야 할 연구과제 이고, 이 대상(위험)에 대한 제 보험 중 인보험에서 평생 사회보험 제도로 개발, 사회 보장 제도에 符合確立(부합확립; 알맞은 사회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 까지

국가적 책임·사회적 책임·개인적 책임모장을 완성'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 보험은 사회보장제의 관점에서 국가사회와 자신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편안하게 돕는다. 그러므로 將來險難(장래 험난함)을 예상하여 피해에 대비 구해낸다는 것. 따라서 生活에서 발생됨에 이후 장래를 향하여 각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危險負擔除去(위험부담제거; 위태로움을 풀어 없앴) 보상해줌 생활안정) 해주는 보증이다. 보상방법으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 해줌으로서 위험 내지 곤경에서 구제 위로하고 또는 安慰(안위) 하게 해주는 구실이란 것. 그러므로 편안 온화 즐거운 생활, 보람 있는 생활 및 사리에 밝은 지혜로운 삶을 향유할 것이다.

우리주변에서 찾아보는 慎果(진시; 참과실)인 茄子(가지)의 신비를 前記 칼럼에 이어 알아보기로 한다! 8)고혈압; 장복하면 모세혈관 과열 방지하는 효능이 있으며 마음을 가리얏히고 식용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9)熱瘡毒腫(열창 독종; 종기가열

이발생 악성 흑) ;생가지깍질을 1일 2회 붙이면 효과가 있음 10)腸風下血(장풍하혈; 장이차고 변으로 피가 나온다)발에서 겨울지낸 가지나 가지줄기 또는 가지 전체를 태워 가루 내어서 매식 전마다 온수로 술을 타서 7.5g 복용하면 치유된다. 11). 초기 암 증세(初期 癌 症勢; 의사진단의)-자색가지 꽃봉오리21개·오래된 집기와 사이에서 나온 와송(瓦松;기와 소나무 또는 石松;바위에서 자란소나무) 1개를 뿌리 채 잘게 썰어 물5그릇 1시간 달여 차마시듯 마심은 암환자 병세완화 효과가 있다. 12). 음부양통(陰部痒痛;성기에 종기 상처 아픔)-자색가지1개 태워 가루 참기를 개어 바를 13).피임(避妊) 피지 않는 가지 꽃14 개를 1회용 기와에 넣고 노랗게 구워 가루로 만들어서 산후 첫 번 월경 후1-7일 이내 매일공복에 황주 또는 청주로 복용효능이 있다.

14).晚成痲疾(만성임질; 성병하나)가지 뿌리 석류피 같은 양으로 말려서 가루를 식전 물로 복용 15).女子陰莖突出(여자음경돌출; 음부 질이 부어 볼록 나옴)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 가지뿌리를 태워 참기를 개어 음경에 삽입하면 효과가 있다. 16).打撲凝血(타박상혈; 타격으로 피가 멎) 멎은가지1개 썰어 말려 태워 가루로 만들어 조식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17).口疳瘡(구감창; 입에 염증 상처) 가지 꼭지를 태워 가루로 만들어 입안 바르면 좋다. "가지 경(뿌리) 근 옆에 독성이 있다." 함으로 유의 바랍니다.(임상본초학참조)

◇편집국에서

○...본지는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호에 지면토론회를 실었다. 창간한지 3개월밖에 안된 작은 지역언론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준 각 후보진영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면토론회의 답변을 살펴보면 엄기영,

최문순 두 후보는 분명 서로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다. 독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지면토론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지 지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